

지금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 요한복음 4장 5-24절

김창선 <<< 루터대학교 교수 / 신약학

1. 들어가면서

한 종교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종교의 형식화 현상이 점차 자라난다. 그와 더불어 그 종교가 추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래적 가치나 본질보다는 눈에 보이는, 따라서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의식과 형식에 집착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중 종교인들은 이렇듯 종교의 외적인 틀과 형식에 집착하면서 종교적 만족감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신실한 신앙인이라면 종교의 의식과 형식보다는 그 종교의 본래적 가치와 본질에 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리라 생각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배의 외적인 틀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은 반복되는 예배와 설교 준비로 인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매 주일 여러 종류의 예배와 설교 외에도 때로는 구역예배, 또한 수많은 심방설교와 갑작스런 예배 등 목회자는 설교 속에 파묻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힘들어하는 것은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성도들은 지루하게 느껴지는 목회자의 설교로 인해 예배 시간을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향간에 “10분 설교

는 천사의 설교이고, 15분 설교는 목사의 설교이나, 20분간 계속되는 설교는 악마의 설교이다”라는 말이 있다. 물론 이것은 농담조의 표현이나, 성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채 지루하게 이어지는 설교를 꼬집는 말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짧은 설교야말로 명설교”라는 말이 성도들 간에 생겨나게 된 것 같다.

설교에 대한 이러한 부담감 때문인지, 성도들은 보통 예배시간에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이 제발 지루한 설교가 되지 않고, 흥겹고 재미있는 설교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관심을 끄는 설교를 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된다. 과격한 제스처를 보이거나, 예배 도중에 감상적인 찬양을 부른다거나, 자극적인 예화를 많이 거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필자가 오래 살았던 독일에서의 경험은 이와 다르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 경박한 종교 코미디 시간으로 변하는 일은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다. 독일에서의 주일은 글자 그대로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소음을 내는 일을 한다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일 등은 상상할 수가 없다. 필자가 살았던 독일의 소도시인 튀빙엔이나 로텐부르크의 주일 오후 분위기는 한마디로 목가적이다. 자동차 소음 대신에 간간히 퍼덕거리는 비둘기의 날갯짓 소리 정도만 들려오는 시내 호숫가를 한가하게 산책한다거나,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여유롭게 끌며 동네어귀를 거닐다가 벤치에 앉아 담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러한 주일 분위기에 걸맞게, 독일 루터교회에서의 주일 예배시간은 진지하며 경건한 분위기가 압도적이다. 교인들도 그러한 예배 분위기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이처럼 독일적 예배 분위기와 한국적 예배 분위기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보면서, 예배에 관한 질문이 떠오른다. 예배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갖고 오늘 우리의 본문을 살펴보자.

2. 본문의 분석과 해설

1) 본문 분석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은 명확하고 정교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복음서 기자의 중심 의도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교육하는 데 있지 않고,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있다. 동시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자 함을 엿볼 수 있다(42절은 이 여인의 고향 사람들도 신앙을 갖게 되었음을 언급한다). 결국 **계시와 신앙이 이 이야기의 두 축**을 이룬다. 계시의 농도가 짙어지고 여인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 다음과 같은 개념들 가운데 드러난다.

9절(‘당신은 유대인’)→ 11절(‘주여’)→ 12절(‘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다’)→ 19절(‘선지자’)→ 26, 29절(‘그리스도’)→ 42절(‘세상의 구주’).

전체 이야기는 극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힘으로써 자기 계시의 절정에 도달한다. 그런데 제자들이 끼어들면서 이 대화가 중단된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시내로 들어간다(28절). 제자들의 장면이 나오면서 이야기에 긴장감을 더한다(31-38절). 수가라 하는 동네에 있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된다(39-42절).

이 이야기에는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몇 가지 상징이 나타난다.

① 예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생수’(1-14절)는 ‘구원’에 대한 은유를 나타낸다(사 55:1). ② ‘영과 진리로 예배’(20-24절)한다는 표현은 제의와 관련된 표현이다.

③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즐거움’ (35-38절)은 선교와 관련된 것이다.

구원에 대한 첫 번째 주제는 전체 복음서를 관통하는 주제로서 다양한 상징어로 표현되고 있다(요 2장, 가나에서의 포도주 선사; 요 6장, 생명의 떡). 그럼에도 복음서기자가 강조하고픈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이다.

• **1-5절(서론)**: 예수님이 왜 유대 지방을 떠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자, 그와 적대관계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혹의 눈초리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 **6-9절**: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이야기 한다. 육시(6절)는 정오 무렵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오랜 도보 여행으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하필 정오에 우물에서 물을 길고 있나(7절)에 대해 물을 수 있다. 잘 알려진 죄인이었기에 다른 여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인가? 복음서기자는 이러한 질문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춘다. 대화가 예수님 자신에 의해 시작된다. 8절 진술에 이어서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청(9절)이 사마리아 여인을 놀라게 한다.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로, 이방인과의 혼혈족이었으며, 시켄(Sichem)에 있는 그리심 산에 독자적인 성전을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부터 이들을 정통 유대인들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들은 단지 모세요경만 성서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그 당시에 이들은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은 욕설로 통했다. 포로기 이후 사마리아인들은 반쪽 이방적인 혼혈민족으로 통했다. 요한

휘르칸(주전 135-104년)이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할 당시 갈등이 극에 달했다. 예수님 시대에 자주 충돌이 있었다(눅 9:52ff). 당시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은 이방인과의 접촉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던 복음서기자는 9절에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분명히 밝힌다.

• **10-15절:** 앞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놓인 경계를 넘었음을 이야기하였고, 둘째 단계에서 예수님은 10절의 말로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10절은 계시의 말씀으로 다음에 전개될 주제를 언급한다. 여기에서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고, 예수님이 베푸는 구원을 상징한다. 11절에서 여인은 결정적인 질문을 한다(어디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으나(13-14절), 여인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15절).

• **16-19절:** 예수님이 그녀의 삶의 여정을 밝혀낸다. 계시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 여인을 교육적인 면에서 훈계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곧, 신앙의 길로 이끄는 데 있었다. 지금까지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의 하나로 보았을 뿐이다.

• **20-24절:** 영과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 찬양에 대해 말하는 가운데 참된 종교에 대해서 다룬다. 예수님의 대답은 합당한 예배 장소를 둘러싼 양자택일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현재 예배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미래적 전망을 제시한다(21절). 여기서 가리키는 '때'(23절)는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종말의 때'를 나타낸다. 22절의 '우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가리킨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는 시간적 표현은 원문에는 문장 맨 앞에 위치하여 강조되어 있다. 23절은 종말의 때와 그 때의 하나님 섬김에 대해 언급한다.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가 지금 자신과 더불어

충만해지기 시작했음을 선포한다. 예수님의 도래함이 곧 종말론적인 현재이다(cf. 요 5:25). ‘참 예배’는 구원의 시대에 적합한 장소와 관련된 것으로 **영과 진리로 특징지어지는 하나님의 현실**을 말한다(24절).

2) 본문 해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에 관해 보도하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종교행위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런 관심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구절로서 예배드릴 때 거의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 (개역)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 (개역개정)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공동번역)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 (표준새번역)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격조사 ‘...으로’ 혹은 ‘...로’의 사용이 나타내듯이, 우리말 성경 번역문으로써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예배드리는 자가 갖춰야 할 경건하고 겸손하며 진실한 마음 자세, 한마디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에 임하는 **내면적인 마음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습

관적이며 형식적인 태도와 대립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한 이러한 '내면적인 이해'는 현재 우리 교계에 만연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경건하고 진실된 내면적 마음 자세는 예배에 임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갖춰야 할 것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24절 말씀의 본래 의도는 그와 다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본문의 문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어느 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기'라는 동네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예부터 전해 내려온 한 우물이 있었다. 제자들이 식량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행로에 지친 예수님은 홀로 그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제6시(=정오)가 되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그곳에 왔고, 마침 물을 청하는 예수님과 대화가 벌어진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날 시리아 지방에 거주하던 사람들로서 이방인과의 혼혈족이고, 구약성경의 처음 5권 책인 모세오경만을 성서로 인정했던 사람들이었다. 예수께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9절에 강조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정통 유대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들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자(7절), 이 여인은 어찌 유대인 남정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느냐고 당황하여 묻는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유대인 남성은 여인에게 직접 말을 걸어서는 아니 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점잖은 랍비의 경우, 그래서서는 더 더욱 안 되었다. 게다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강한 적대감이 있었다. 여인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메시아 계시의 문제를 언급한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줄 알았더라면 (역으로)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그러자 여자는 물 길을 그릇도 없이 도대체 ‘생수’를 즉, 살아 샘솟는 물을 어디서 얻겠는가 하고 11절에서 상당히 이성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아마도 예수님이 물이 샘솟는 다른 장소를 알고 있지 않나 생각한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줄 알았더라면 (역으로)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리라”는 예수님의 진술을 여인은 약간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 여인은 자기들의 조상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사용했던 이 우물을 자신들의 유물, 즉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한 유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들의 유물을 둘러싸고 왈가왈부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라고 반문한다. 여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실제로 마실 수 있는 생수와 같은 종류의 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물임을 설명한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13-14절).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생수’라고 우회적으로 말함으로써, 여인에게 물을 청하는 자기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힌다. 그러나 여인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갈증을 해소시키는 마법의 물과도 같은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14절)을 달라고 요청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자 16절에서 예수님은 다른 각도로 대화를 돌린다.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의 과거사를 꿰뚫고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아차린다.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하자, 예수께서는 남편 다섯을 가졌던 여자의 과거사를 정확히 밝히고(18절), 그

제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서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고백한다(19절).

이어서 여인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오랜 논쟁거리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참된 장소가 어디인가”라는 문제를 언급한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 산(=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하고 말함으로써, 두 장소와 상관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드릴 때가 지금 이르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 예배드리는 특별한 장소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나 그리심과 같은 성소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2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또한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인가를 말씀하신다. 우리말 ‘개역성경’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고 번역한다. 여기서 ‘이 때’란 예수께서 오신 때를 가리킨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현재를 의미한다. 헬라어 원문 성서는 ‘이 때’라는 단어를 문장의 맨 앞에 놓아 강조하고 있다. 참된 예배가 바로 지금 예수님 자신과 더불어 성취되고 있음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참된 예배란 예수님과 함께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예배**를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참된 예배의 처소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제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장대한 장소에서 거행되는 예배일지라도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현장에서 많은 목회자들은 23절과 24절에 나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혹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표현을 예배드리는 사람의 영성 혹은 내면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가운데

여전히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의 문맥에서 볼 때, 이 표현은 인간의 내면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대에 합당한 장소와 관련하여 사용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흔히 ‘신령’으로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로 ‘프뉴마’(*πνεῦμα*) 즉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인간의 신실한 영을 뜻하는 인간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말이다(cf. 24 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제의 장소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점은 구약의 여러 구절도 언급한다(왕상 8:27-30; 사 66:1-2; 말 1:11). 또한 ‘진정’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알레테이아’(*ἀλήθεια*) 역시 인간의 진실된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곧 “예수님에 의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영에서 난 자”(요 3:3-8 참조) 혹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뜻한다. 결국,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영**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충만해진 예배를 가리킨다.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의 순간인 셈이다. 여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설명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모든 것을 선포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25절).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계시하신다(26절).

3. 적용

필자는 독일 유학 기간 중에 오랜 동안 독일교회에 나가면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 모로 체험할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와 차이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확연히 눈에 띄는 것은, 예배는 보통 주일날 오전 10시경에 단 한 번 드린다는 사실이다. 오전에 예배를 드린 다음, 주일을 그야말로 안식일답게 평안히 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나라의 교회에는 교단을 초월하여 여러 종류의 예배가 있다. 주일공동예배 외에도 새벽예배라든가 수요일예배 혹은 금요일예배 주일오후예배 등. 이렇게 많은 예배가 있고, 가능하면 이들 예배에 많이 참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다. 예배에 참석하는 열심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심 정도를 재기도 한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그런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한다. 이러한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독일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즉 주일 오전에 딱 한 번 예배드리는 모습은 참으로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기 십상이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우리와 다른 독일 사람들의 신앙모습은 우리보다 못한 열등한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더욱 바람직한 신앙적인 것인가?

오늘 살펴본 말씀은 당시 사마리아 여인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계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너무도 예배의 특정시간과 특정 장소에 집착해 있는 경향이 있다. 마치 하나님은 주일에 교회당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시간에만 임재하고 계신 듯이 말이다. 그래서인지 주일에는 나름대로 경건해 보려고 노력하나, 평일로 돌아가면 신앙과는 무관한 세상 사람처럼 바뀌는 것 같다. 그러한 태도는 예배의 형식에 맹목적으로 매여 있는 종교인의 자세이지, 예배의 본질에 사로잡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참된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로서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전체 삶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실로 우리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 성령과 예수님이 우리 삶의 동반자 되신다는 확신은 우리로부터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내고, 우리 마

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평안과 담대함을 갖게 해 줄 것이다.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삶의 동반자 되신다는 사실은 동시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요청한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이루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요청이다. 예컨대, 갈라디아서 5:22-23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예배시간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예배의 본질을 망각한 채 삶을 제멋대로 살아갈 경우,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이 형식적인 종교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진리 안에서** 충만해진 참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 김창선 연세대학교(B.A.)와 독일 괴팅겐대학교를 나와 독일 튀빙겐대학교(Mag.theol., Dr.theol.)에서 공부했다. 현재 루터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있다.